

듀록전문종돈장

정원농장

듀록이 좋아 캐나다산
듀록전문종돈 20두 도입



수원시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포장길을 따라 승용차편으로 15분정도 가면 화성군 정남면 패량리 307번지(전화 2 - 1250, 5228)에 소재한 듀록전문종돈장 정원농장이 길가 바로옆에 입지하고 있다.

3,000여평의 대지에 100여평의 돈사는 우거진 숲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어미씨돼지들은 한겨울에도 옥의 방목장에서 사육하고 있다고 전하는 김태원 수의사(정약원, 정원농장 대표)는 지난 83년 5월 캐나다산 듀록 20두(♀16, ♂4두)와 요크셔 4두, ♀2두,

♂2두), 랜드레이스 4두(♀2두, ♂2두), 햄프셔 2두(♀1두, ♂1두)등 원종돈 30여두를 도입한 것이 오늘의 정원농장이 되었다.

듀록의 경우 83년 12월 30일부터 분만하기 시작하여 현재 2산 분만을 시작하고 있는데 평균 산자수가 9.8두로 비교적 잘 자라는 편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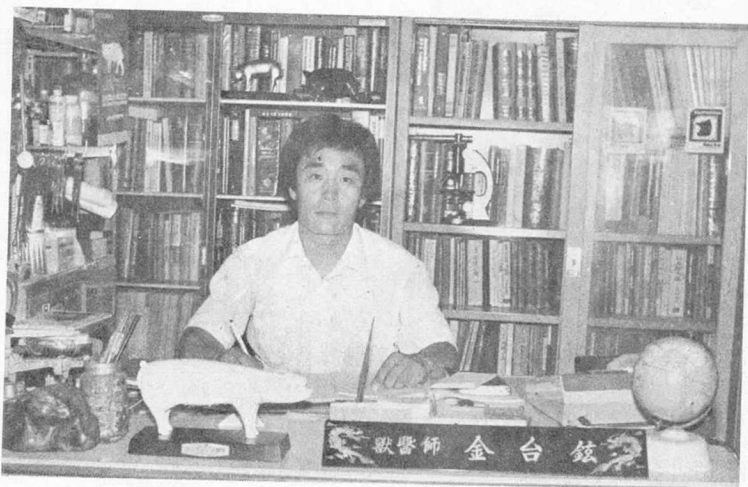
듀록의 평균 생시체중이 1.75kg인데 이 농장은 1.95kg이라는 숫자를 보면 새끼상태가 우량인편.

씨암돼지 15두에 씨숫돼지 1두면 족한데 이 농장은 듀록의 경우 16 : 4라고. 이것

은 혈통유지를 위한 것인데 혈액갱신을 위해선 암돼지는 그대로 쓰고 새로운 숫돼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1975년에 평택에서 비육돈 500두규모로 양돈업에 손을댄 후 1978년 이곳 정남으로 이전하여 비육돈 300두규모로 끌어오다, 1981년 비육돈을 정리한 경험도 갖고 있는데 그동안 돼지콜레라에 혼이 났었다고.

1948년 해방동이 서울생인 김태현씨는 1972년 수의대학을 졸업했는데 군에서 영농붐이 일어나 그때 돼지와 가까이 지낸 것이 인연이 되어



—서재앞에서 잠시 포즈를 취한 정원농장 대표 김태현 수의사—



—수원 매교동에 위치한 동물약품을 판매하고 양축가 상담실인 정약원—

분업화된 개체별 전문종돈장이 바람직

양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오다 서울에서 소동물임상병원을 4년정도 개업해오면서 농장을 마련할 자금이 조달되어 75년에 돼지에 손을 댔다고.

듀록이 좋고 맘에 들어 듀록전문종돈장을 구상했었는

데 고르다 보니 욕심이 생겨 렌드레이스 요크셔 햄프셔종까지 들여 왔는데 이것들은 암돼지 한마리에 숫돼지 한 마리씩 도입되어 종부 임신시키고 나서 숫돼지는 놓고 있는 비경제성을 야기시켜 앞으로는 듀록 한품종으로 나

갈 생각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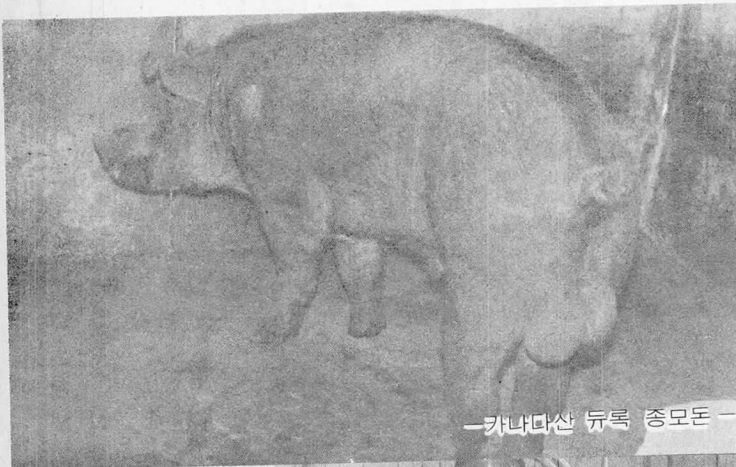
불황이다 보니 수원시에 서 동물약품 판매점 정약원 경영으로 남들보다 종돈판매가 유리한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잘 안되는 실정이며, 자돈생산비는 20만원정도로 높는데 그 이유는 맘에 드는 것만 판매하기 때문인데, 처음엔 사양관리가 편하도록 50kg이상 되는 종돈을 30만원으로 분양했었는데 실수요자의 부담이 크고 너무 커지는 놈이 문제가 되어 현재 30kg에 20만원 기준으로 1kg 증체당 2,000원씩 가산하여 분양하는데 충청 전라 포천 의정부등 전국 각지에서 온다고.

현재 분만시설은 낙후되어 뒷산을 개간하여 현대식 분만사를 지을 계획이며, 체질 강건하고 과비를 막아 종돈답게 기르기 위해서 육성종돈사는 옥외사육에 적합하게 짓고 종돈내용연수를 늘리겠다는 방침인데.

현재 공인 종돈능력검정소에 2두를 출품한 바 있는데 앞으로 계속 출품하겠다고.

농장검정(자가검정)은 시험적으로 몇두에 대해 실시한 경험이 있는데 체계적으로 엄격하게 다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캐나다 연

전산화계획을 수립 분양자에게 개체능력을 제공할 계획



— 캐나다산 듀록 종모돈 —

수시 본적이 있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또 마이크로 컴퓨터를 정약원에 도입 가동중에 있어 그 여유 용량분으로 농장관리 전산화계획을 짜 분양자에게 개체 능력을 제공할 계획이고 더 나아가 전산화용역업무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종돈 사료관리는 모돈의 경우 옥외사육을 하기 때문에 개체별로 공정하게 나눠주기 어려워 1일 1회 급여하고 있는데 분만 1주일까지 서서히 늘려주다 1주일이후부터 평균 4.4kg씩 급여하고 사양관리는 도입시 호흡기질병 때문에 애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적응되어 좋아졌으며, 질병관리는 제일 골치아픈 질병이 위축성비염으로 억제하는데 힘들며 이것을 컨트롤하는데 애쓰고 있는데 이 전염성 질병은 자돈에 옮기면 종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 농장전산화 기능을 담당할 마이크로 컴퓨터 —



— 야외에서 운동하는 듀록 종모돈 —

또 우리나라에 상재하는 돼지콜레라는 초유전 집종으로 예방하고 있고 헤모 피루스성 흉막폐염과 돈단독 유행성폐염등 에스 피 에프 돈이 아니면 없앨 수 없는 소모성질병의 방역에 신경쓰고 있

튜록전문농장이라면 곧 정원농장이라는 인식을 받을수 있도록



—포유중인 캐나다산 수입원종빈돈—



—태어난지 1주일밖에 안된 튜록의 자돈—



—우량종돈 보급을 위해 대기중 낫잠을 즐기는 육성종돈—

는데 기본적으로 방역프로그램이 좋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

인력관리는 2명을 농장에 투입하고 있는데 세밀한 기록관리 분만관리 개체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고.

대만 일본 미국 캐나다를 둘러보고 캐나다의 18개 농장으로부터 혈통이 다른 돼지를 선발해 왔는데 그들중에서도 능력의 차이가 뚜렷이 나고 있다고.

또 종돈도입시 다두를 선발하기 때문에 그나라 돼지들이 우리나라보다 평균 능력이 좋은것은 인정되지만 제대로 선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주고 이와같이 한꺼번에 다두를 도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앞으로 튜록전문농장하면 정원농장이 될수 있도록 전문종돈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각오가 대단한 김태현씨는 질병연구회와 그것의 모체인 임상병리연구회와 양돈연구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또는 격월 모임을 갖고 있다고.